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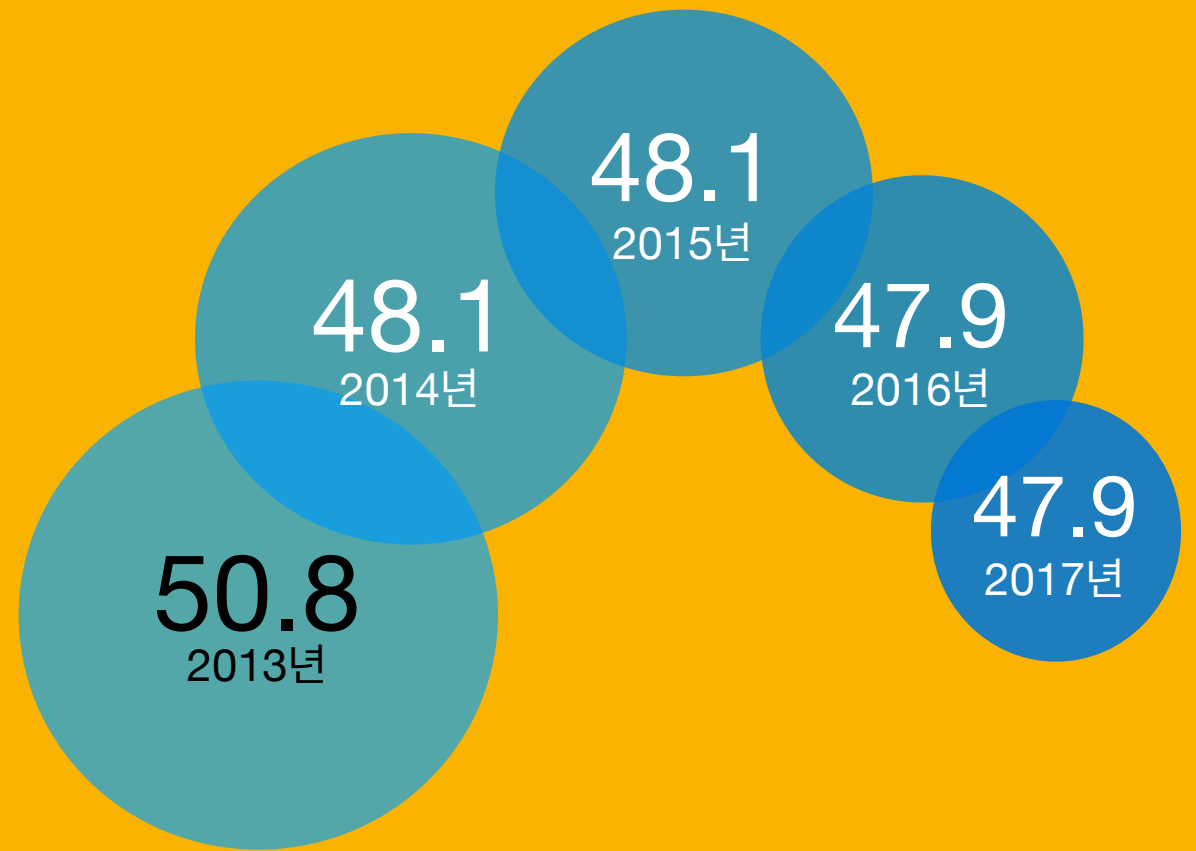
BEAR.BETTER.



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회사

베어베터

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의무 이행비율 단위: %



우리나라는 전부터 장애인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.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을 꼭 고용시켜야하는 **장애인 고용 의무제도**를 제정 했지만, 고용주들은 장애인들의 능력에 물음표를 가지고 부담금을 내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.



그런데 여기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든 기업이 있다. 바로 베어베터이다. 이 기업은 전체 직원 **240명 중 83%인 199명이** 발달장애인이다. 목표가 뚜렷한 것이다. 돈버는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말이다.



BETTER.
FLOWER.



BETTER.
CAFE.



BETTER.
STORE.



BETTER.
COPY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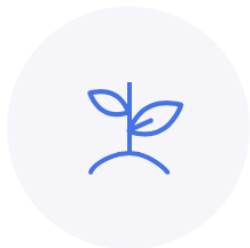


BETTER.
COFFEE.



BETTER.
COOKIE.

이 기업은 절대 장애인들의 능력을 의심하지않았다. 그로 인해 복사
업에서 시작한 사업은 현재 커피 로스팅, 쿠키제작, 카페등 여러 분
야의 사업을 진행중이다.



업력 9년차

2012년 5월 2일 설립



중소기업

기업형태



250명

2018년 기준 인원수



88억 4,896만원

매출액

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한 기업은 창립후 9년에 지나지 않아 **88억 5천만원**에 달하는 매출액을 세우게 되었다.

이정도면 장애인의 능력에대한 의혹은 편견일 뿐이라는걸 알수있다.



우리학교 특성상 창업을 할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,
한번쯤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업을 생각해보는것은 어떨까?